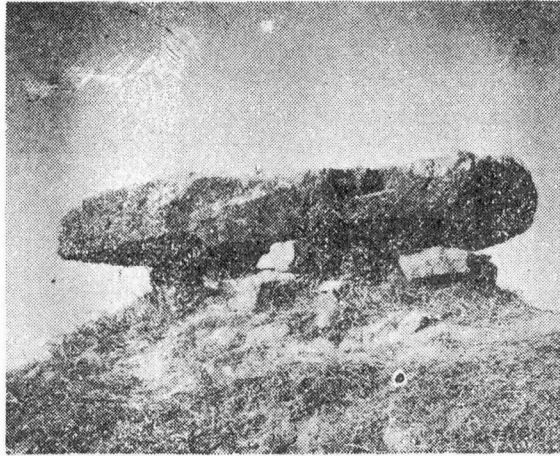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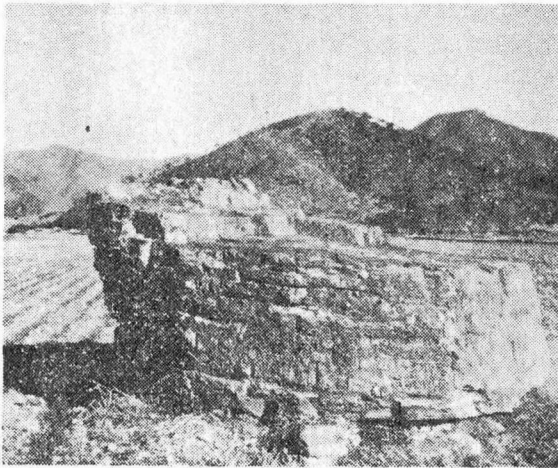
# 慶南地方의 支石墓 數例

金 元 龍

巨濟島



巨濟島 靑谷里 支石



固城郡 石馬里 支石



固城郡 巨山里 支石

慶南巨濟島에는 沙等面에 支石里라는 洞里가 있어 支石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數年前 그 洞里를 해마다가 發見 못하고 돌아왔는데 今年 三月 統營으로부터 自動車를 타고 入島하다가 支石里 채 못 미쳐 靑谷里라는 部落 路邊에서 一基를 發見하였다. 그때 車에서 내려보니 都合 三個가 있는데 그 中 하나는 海邊쪽으로 三〇〇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조고만 언덕위에 있었다. 道路 바로 옆 조고만 高所에 있는 第一支石은 長軸을 東西로 둔 長二·五米, 幅一·三七米 厚 五七厘의 玄武岩板石이며 바

다에 조고만 塊石이 두개 피여 있었다. 洞里 中學生들 말에 依하면 이 바위는 그 모습이 비행기 같아 「비행기 바위」라고 불리우고 있다 하며 元來는 道路邊에 있던 것을 交通關係로 昨年에 現位置로 끌어 올린 것이 라고 한다.

第二의 支石은 前記 支石에서 東쪽 약 五〇米地點 畑中에 있으며 下部 構造는 알 수 없으나 上石은 最大幅 一·五米쯤의 不等五角形板石이며 두께는 四〇厘다.

第三의 支石은 前記 두 支石의 北方 海邊쪽으로 約 三〇〇米 내려가 있으며 長軸을 東西로 둔 長二·一米, 幅一米, 厚 三四厘의 長方形板石이며 아래에는 塊石이 여러개 놓여 있어 典型的인 南式支石墓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寫眞)

이 附近에는 이러한 自然 板石이 굴러다니지 않고 또 支石里라는 地名이 있는 點等으로 보아 이 板石들이 支石인 것은 거의 疑心이 없으리 라고 생각된다.

固城郡

固城邑附近에 貝塚 支石墓가 있다는 것은 大正六年度報告書概報에 載혀 있는데 貝塚은 이미 湮滅되어 없어지고 支石墓도 所在을 밝힐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에 實査한 바에 依하면 固城 北方 馬岩面 石馬里에는 南式支石墓 十基가 畑中에 一列로 서 있었고 다시 邑南方 東海面 內山里와 巨流面 巨山里에도 各一基씩 支石墓가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南方式인데 馬岩面것은 同里居住 李春煥氏의 報告로써 알게 된 것이며 巨大한 岩塊를 地上에 놓은 形式이었다. 東海面것은 조고만 岩塊였으나 數個의 小支石들에 依하여 고여진 것이고 巨流面것은 板石形인데 奇異한 것이 元來 海邊의 小丘上에 있었던 것을 水田耕作으로 因한 削土또는 地面降下로 이 支石있는 部分만이 望樓처럼 높게 솟게 된 모양이다. 寫眞에서 보듯이 이 高堂周邊은 石築으로 補強되고 支石周圍에는 새끼줄까지 둘러 城隍堂 같은 信仰의 對象으로 되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石階段까지 마련되고 있다. 支石墓가 巨石信仰과 結附되어 信仰의 對象化된 滋味있는 例라고 할 수 있다.

考古美術 卍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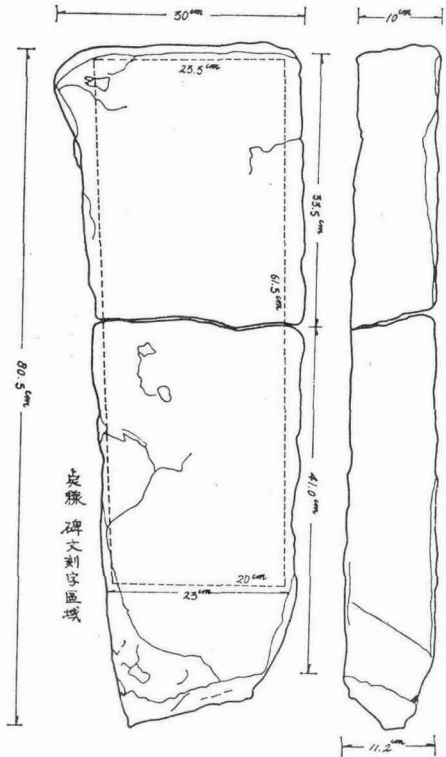
◎ 南山新城碑 發見

今年三月二十日 慶州市 排盤里 居住 李判出氏가 自己所有의 硯石들을 整理中 加工된 硯石片을 發見하여 自家에 運搬해다 놓은 事實을 들은 慶州分館 秦弘燮氏가 今年 六月十二日 現場을 調査하고 그것이 南山新城碑의 斷片임을 發見하고 慶州分館으로 移置하였다. 碑는 花崗石片으로서 現在 一斷되어 있는데 그 實測圖는 다음과 같다.

仔細한 報告文은 秦弘燮氏에 의하여 歷史學報 十三輯에 發表될 것이다.

◎ 金海郡 大東面 禮安里 貝塚 調査

이 貝塚은 洛東江岸의 小丘陵下 臺地에 갈린 貝層으로 形成된 것이며 一九五八



南山新城碑 (慶州 排盤里 出土)

年에 釜山大學校 丁仲煥教授와 慶南工高校長 朴敬源氏 등이 主가 되어 四箇地點을 試掘하여 簡單한 石槨墓와 人骨 등을 發見하였다.

◎ 三田渡 清太宗紀功碑의 再建問題

三田渡의 有名한 清太宗紀功碑의 碑身은 碑文이 恥辱의이라 해서 一九五八年 봄에 附近地下七尺깊이에 埋沒하였던 것인데 其後 洪水에 依한 河岸流失로 因해 碑身·龜趺가 모두 水中으로 轉落하였으며 이대로 두면 江底에 埋沒되어 버릴 危險이 두렵하므로 文教部에서는 時急히 이를 引揚하여 石村里의 高地에 移建할 計劃이다. 그런데 碑身의 무게만 約十五噸, 龜趺의 무게가 二十五噸이나 되고 現位置의 地盤이 매우 弱하고 陷沒되기 쉽기 때문에 그 工事는 여러가지로 難工事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 中興山城 雙獅子石燈 移建

새로 國寶로 指定된 有名한 이 石燈은 其間 元所在地인 景福宮 慈慶殿 앞에서